

간편식 시장을 점유해가는 스마트폰 앱

두바이지사

UAE에서 음식 주문은 간편한 스마트폰 앱으로

- 배달음식 수요가 많은 UAE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음식 주문도 쇄도하고 있다. 2017년 시장 조사기관 KPMG의 <UAE 식품 및 음료(F&B)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소비자의 60%가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미국인의 18%만이 음식을 주문하는데 앱이나 웹 사이트를 사용한다는 Morgan Stanley의 2017년 보고서에서 밝힌 수치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 음식주문 뿐만 아니라 식당검색, 리뷰 읽기, 각종 할인혜택 받기 등 UAE 소비자들은 앱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외식 대신 편리하게 주문 배달해 식사를 해결하는 고객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UAE의 레스토랑들은 배송 앱에 주목하고 있다. KPMG의 조사결과, 대상 사업자들 가운데 87%가 배송 앱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앱을 이용하면 음식주문부터 배달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간편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까지 절약된다는 이점이 소비자들을 스마트폰 앱으로 이끌고 있다. 배송 앱을 통한 주문빈도는 외출하기 쉽지 않은 무더운 여름에 특히 증가한다.

요리 재료와 레시피도 집에서 간편하게

- 최근에는 완성된 요리가 아니라 가정식 요리를 위한 손질 재료와 조리법을 제공하는 앱도 인기를 얻고 있다.

- ‘Dinner Time(dinnertime.ac)’이 대표주자다. “우리는 배달합니다, 당신은 요리하고 즐기십시오” 라는 콘셉트로 어필하고 있는 Dinner Time은 매주 요리에 필요한 신선한 재료와 조리법이 동봉된 박스를 집으로 배송한다. 식자재 쇼핑과 재료준비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해 점차 소비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 한국식품업계에서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UAE 소비자들의 기호에 잘 맞는 한식 배송음식을 개발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한국음식 소개와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UAE로의 한식진출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UAE에서 유명한 음식 배달 앱



출처 : TechRadar, www.techradar.com (2018.5.16)

Khaleej times, www.khaleejtimes.com (2018.5.4)